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주요 사례

1. 국민행복기금_內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3만명) 1
2. 국민행복기금_內 약정자, 타제도 이용자 등 (42.7만명) ... 2
3. 국민행복기금_外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76.2만명) 3
4. 국민행복기금_外 약정자 (신복위, 0.2만명) 4
5. 소멸시효 완성채권 연장, 추심·매각 규율 강화 5
6. 종합 신용상담 및 공적채무조정 연계 강화 6
7. 국민행복기금 잔여채무자 적극적 채무정리 지원 7
8.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 채무면제 8

“황혼에 펼쳐진 희망! 이제는 영감과 오순도순 걱정 없이 살래요.”

올해 72세 금씨 할머니는 폐지를 모으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76세)은 당뇨와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슬하에 자식도 없어 할머니 혼자 폐지를 모으다 보니 수입은 5만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금씨 할머니는 기초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약 84만원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남편의 약값에 방세 등을 제외하고 나면 생활비로 쓸 돈은 늘 빠듯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금씨 할머니의 근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5년 전 남편이 길거리 장사라도 해보겠다며 할머니 이름으로 대출 받았던 850만원과 그간 쌓인 연체이자 3,5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곳에서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최장 10년간 나눠갚게 해주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지만, 금씨 할머니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며 걱정과 근심이 쌓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씨 할머니는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3년 뒤 재산 등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원금 850만원과 연체이자 3,500만원을 모두 감면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씨 할머니는 마음 한 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빚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자, 황혼의 나이지만 무엇이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던 박씨(남, 47세)는 직접 경영한다면 보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2005년 그동안 모아두었던 월급에 저축은행 대출금을 더해 타이어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악화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2년 만에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박씨는 두 명의 아이들에게 비참하게 무너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박씨의 아내는 박씨를 데리고 '15년 국민행복기금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해 주었고 1,600만원의 채무원금에서 45%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지인의 타이어 매장에 일을 도와주며 받는 월급 170만원으로 생업을 꾸려나가면서도 한 달에 21만원씩 30개월을 성실히 상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차례로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매달 납입하는 21만원이 생활에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정금액이 이제 410만원 남은 상황(채무원금 기준 970만원)에서 끝까지 빚을 갚아 나가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된 박씨는 근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씨는 뉴스에서 장기연체자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국민행복기금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상환능력 심사결과 박씨는 즉시 채무가 면제되었고 박씨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씨(남, 53세)는 한때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규모의 회사를 직접 운영하며 직원들에게는 ‘사장님’ 소리를 들었고, 가정에선 아내와 삼남매의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김씨의 삶은 정반대로 기울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대표이사로서 법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설정되어 한 순간에 집과 재산 전부가 경매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집값이 저렴한 지방으로 내려갔고, 김씨 혼자 고군분투하며 본인의 채무를 갚아 나갔지만 빚의 족쇄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채무불이행정보로 인해 제도권 금융회사는 이용할 수 없어 결국 대부업체에서 150만원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수입이 일정치 않아 이마저도 갚지 못하게 되었고, 11년째 추심에 시달리던 김씨의 채무는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800만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정부에서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씨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소득정보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상환능력 심사 결과 김씨는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부업체가 보유한 김씨의 채권은 신규기금이 매입하였습니다. 이제 김씨는 더 이상 대부업체의 추심도 받지 않게 되었으며 3년 후에는 채무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아 기쁩니다”

폭력적인 남편... 장애가 있는 아들... 어려운 가정환경에 가출 후 돌아오지 않은 딸까지... 남편은 술을 마시면 집안의 물건을 깨 부셨고 10년간 모진 세월을 자식을 위해 버텨왔던 안씨(52세, 여)는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는 남편에게서 도망치듯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무일푼이었지만 안씨는 장애가 있는 아들만은 챙겨야겠다는 마음에 화장실 청소 등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며 근근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씨는 1,000만원의 대출이 연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12년 전 남편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의 병원비도 빠듯하지만 안씨는 빚은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원금 53%를 감면받고 매달 4만9천원씩 6년째 빚을 성실하게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기소액 연체자들의 빚을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환능력 재심사를 신청했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으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안씨는 남은 채무 약 120만원을 즉시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소멸시효란 무엇입니까?”

12년 전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가출했던 딸이 돌아왔을 때는 혼자가 아닌 둘이었습니다. 미혼모가 되어 손녀를 안고 온 딸을 차마 내칠 수 없었던 강씨(58세, 여)는 어린 손녀와 미혼모 딸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강씨의 딸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다시 나가버렸고 결국 강씨는 손녀딸과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씨의 사정을 알게 된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인근 주민센터의 복지 지원을 받아 생계급여 84만원을 받게 된 후에는 그래도 생활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5년 전 손녀딸이 아파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급하게 카드회사에서 빌렸던 200만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던 강씨는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 걱정에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달이 지난 후 강씨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 사장님에게 법원에서 온 통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행위라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빚을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강씨는 앞으로 10년 동안 더 추심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소멸시효 연장기준이 개선된다면 강씨와 같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급한 불 끄러 왔다가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오씨(50세, 여)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면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여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현재 식당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이자를 감당해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곧 저축은행에서는 원리금이 납입이 되지 않았으며 독촉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오씨는 지인의 소개로 대학생인 자녀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오씨는 급한 마음에 상담사에게 우선 빚 갚을 돈이 필요하니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사는 오씨의 채무상태를 파악한 후 추가적인 대출보다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아나갈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오씨도 상담사의 설명이 이해는 되었으나 자신이 채무조정을 받으면 당장 자녀들과 먹고 살 생활비가 크게 부족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씨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니 상담사는 오씨는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동행한 자녀가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씨는 자신의 소득으로는 빚을 갚아 나가고 자녀가 받은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6년간 거치가 가능하므로 자녀가 취직해서 빚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니 살아날 구멍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종합상담을 받고 나온 오씨는 무조건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기의 희망을 꿈꾸며”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정씨(42세, 남). 20살 때부터 모은 돈으로 작지만 아담한 일식집을 차려 운영해왔고, 넉넉하진 않지만 화목한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6년 전 아버지의 암 진단으로 인한 병원비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씨는 급한 대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2차례 수술로 정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병원비에 보탬으나, 운영하던 가게마저 어려워져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식구 챙기기도 어려웠던 아내마저 신용대출을 받아 총 4,00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씨는 가게를 정리한 뒤 일식집 주방장으로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월급 2백만원에 아버지 병원비, 네 가족의 생활비에 보태고 나니 불어나는 연체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씨는 자신의 채무가 '13년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알고 채무조정을 신청해 보려했지만 원금의 60%를 감면받더라도 빠듯한 월급으로 빚을 갚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씨는 얼마 전 뉴스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장기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00만원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어 90%의 감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례8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 채무면제

“지긋지긋했던 보증의 덫에서 벗어나 다시 꿈을 꾸다”

2004년 김씨(여, 34세)가 20살 성인이 되자 김씨의 어머니는 김씨에게 빚보증을 서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무걱정 말라며,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어머니의 말에 김씨는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헤어디자이너로 꿈을 꾸던 김씨가 강남의 유명 미용실에 취직하고 월급을 모으는 재미에 빠질 때 쯤 갑자기 체크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알아보니 어머니가 채무를 연체하여 카드사에서 통장 출금을 모두 정지시킨 것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계좌를 살릴 수 없다는 말에 김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였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감과 꿈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사회와 단절되어만 있었습니다. 김 씨 앞으로 국민행복기금이 보낸 우편물이 왔지만 사회에 냉소적이었던 김씨는 우편물을 추심업체의 독촉장이라 여겨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뉴스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인적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은 본인 신청 없이 간이심사 후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한 결과 김씨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어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답변을 듣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김 씨는 잊고 있던 헤어디자이너로서의 꿈을 이제 다시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